

대전역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홍보

장수군, 27일까지 팝업스토어 운영...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

장수군이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대전역에서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홍보를 위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장수 의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소개하고 군 공식 SNS 팔로우 및 구독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면서 장수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이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대전역에서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홍보를 위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홍보 포스터로 꾸며져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축제 홍보 공간, 장수군 공식 SNS 구독 및 팔로우하는 오프라인 '행운의 뽑기판' 이벤트 공간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운의 뽑기판' 이벤트는 장수군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팔로우 구독하면 뽑기를 통해 1등부터 5등까지 모든 참여자에게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특히 이벤트에 참여하는 현장 방문객에게는 광 없이 100% 당첨 기회가 제공되며 1등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2등 손선종기 혹은 캠핑의자, 3등 장수시과 마스크팩, 4등 비타 500, 5등에게는 견과류를 증정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장수군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후 해당 이벤트 게시글을 공유 리그램하고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남긴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50명분의 유명브랜드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이번 팝업스토어가 유동 인구가 많은 대전역에서 열려 전국적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축제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제1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매력을 전국에 알

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올 가을 많은 분이 축제장에 방문해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빨간 맛'을 테마로 △'흑백요리사' 셰프와 함께하는 레드푸드 요리 만들기 체험 △장수 한우·사과마켓 △레드푸드 존 △레드푸드 사할 음식 만들기 체험 △아빠와 함께 토마토스파게티 만들기 체험 등 7개 분야 58여 개 프로그램과 다양한 무대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두문향약 계승·활용 방안 모색

무주군, 무형유산적 가치발굴 위한 학술대회 개최

무주군은 지난 21일 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관에서 '안성 두문향약의 무형유산적 가치발굴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역공동체 규범인 두문향약의 역사적 가치와 무형 유산적 의미를 검토하고 현대적 계승·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두문향약보존회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주민 30여 명이 함께 했다.

발표자들은 두문향약이 조선시대 마을 공동체의 자율 규범으로서 주민 간 화합과 상부상조를 이끌었던 점을 강조하며, 향후 보존을 위한 △기록화·자료화 사업, △청소년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박금규 무주군청 태권문화과장은 "두문향약은 단순한 생활 규범이 아니라 군민이 오랜 세월을 이어온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

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구체적인 보존·계승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문화유산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두문향약 관련 자료 조사 및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무주문화원, 두문향약보존회와 협력해 전승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무형유산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두문향약은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에서 전통과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민 상호 간의 도덕과 예절,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마을 자치 규범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무주군은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2025. 4.~12.)을 추진 중으로, 지난 4월부터 안성면 금령리 두문마을에서 '두문향약' 발굴·정리·보존·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 실시

장수군은 지난 20일 장수군 전역에서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 훈련으로 공습과 미사일 공격 상황을 가정해 대피 요령을 익히고 소방차 진입 훈련 등을 통해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오후 2시 민방위 경보발령을 시작으로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최훈식 군수의 지휘하에 주민대피훈련, 시가지 도로통제 훈련 등 유사시 대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직접 체험 훈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의료원에서는 시범훈련이 열렸다. 장수소방서와 제7733부대 2대대가 협조해 심폐소생술 실습과 화재방 방독면 착용 교육을 진행했으며, 100여 명의 직원과 주민들이 참여해 예년보다 한층 충실한 훈련이 됐다.

이번 훈련에는 공무원과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조 체계를 확인했으며, 장수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읍 기관단체협의회 정기 월례회 개최

진안읍 기관단체협의회(회장 정상식 읍장)는 지난 20일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관단체 협의회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안읍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건의 및 협력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수돗물 장학금 등 학생 혜택 홍보 △지역사랑 상품권 캐시백 제도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고추장포장재 관리 개선 건의 등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진안읍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소금 창고'에 기부를 결의하고, 곧 다가오는 명절에 진안지역 농산물을 적극 구매하고, 그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고품질 미생물 연중 공급

자카·외부 품질검사 통해 민간제품 수준 유지

진안군은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품질 친환경 미생물 6종을 연중 무상 공급하고 있다.

미생물을 활용한 농업은 농약 및 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작물생육 발달을 촉진하며 토양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진안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은 무상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유통 제품과 견줘도 손색없는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효모, 광합성균, 유산균의 품질을 꾸준한 자가품질검사와 외부 전문

기관 분석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미생물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축산인, 영농법인이다.

공급을 희망하는 군민은 배양센터를 방문해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배양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농번기(3~10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역사 커뮤니케이터 최태성 초청 강연

'2025 무주, 내 고장 바로 알기' 독서·인문 캠프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첫 번째 프로그램, '300년 수호의 역사, 적상산사고가 지켜온 조선왕조실록' 강의가 21일 무주진흥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은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 무주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과 군민 2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

다.

강연에 나선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는 적상산사고 이안행렬·포쇄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재연을 통해 살아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는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국가의 정신과 정체성이 담긴 보고"라며 "특히 무주 적상산사고



가 실록을 지켜낸 이야기는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져야 할 소중한 역사"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지역복지 유관기관 종사자 정신건강 역량 강화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문민수, 이하 센터)는 21일 지역복지 유관기관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과 더불어 직무스트레스 해소, 소진감 완화를 위한 원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은 이해림(前정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중독센터 상담실장)강사를 초빙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독의 세계'란 주제로 유관 기관 종사자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했다.

군은 이번 교육이 유관 기관 종사자의 정신건강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

계 및 협력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다양한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였고 서비스 이용대상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중요하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업무에 지친 마음을 원예치료를 통해 스트레스 완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문민수 센터장은 "다양한 중독의 문 제점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 단체장·실무자 간담회 개최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21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단체장 및 실무자 간담회를 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봉사단체장 및 수요처별 행정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봉사자 기반안전 수칙 및 수요처별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수요처별 행정 담당직원들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게 되는 분야로는 최북미술관 반딧불축제 특별전, 무주안성낙화

놀이 재연, 무주상상반디술 운영, 유아차·휠체어 대여소, 반딧불이 주제관 운영, 행사장 주변 청소활동, 곤충박물관, 반딧불축제 기념 불꽃놀이 봉행자 안전통제등 8개 분야별 배치가 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운영되는 전문봉사단(속품, 서금요법, 귀반사,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부스 운영을 통해 축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무주군여성단체 및 20여개 봉사단체가 참여한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전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